

‘한미·일 공조’ 삼각형인가 종속형인가

[한겨레]

+ 한승동 기자 

한승동의 동서횡단 /

“저는 어릴 적부터 한반도나 중국에는 발을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오에 겐자부로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라는 이노우에 히사시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국민의 손으로 처형됐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천황제 전체주의였던 일본만이 새로 태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공식통계로도 2차대전 중에만 아시아인 1150만명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죽었다고 했다. 여기에는 19세기 말부터 1910년 조선병탄을 거쳐 1931년 만주 침략까지의 수십년에 걸친 조선 침략 과정에서 자행한 일제의 대규모 조선인 살육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 이노우에는 그런 살육뿐만 아니라 “조선의 젊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끌고 와 공장이나 탄광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도 전범 히로히토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엉뚱하게도 전쟁에 반대한 ‘평화주의자’로 탈색되고 날조됐다. 그리고 전후 일본 재건의 실질적 구심점이 됐다.

얼마 전에 나온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정기학술지 <일본비평> 창간호(그린비)에서 박진우 숙명여대 교수는 그런 날조가 어떻게 연출된 것인지 그 배경과 맥락을 다시 살폈다. 그것은 좌파세력이 자신과 천황제의 명줄을 짚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던 히로히토 자신과 그것을 이용한 미국,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면서 일제가 저지른 아시아인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사실에 눈감고 전후에도 미국이 조장한 일본 특수성과 선민의식에 젖어 미국이 의도한 분리이간책·이이제이에 놀아난 대다수 일본인들 3자 합작품이었다. 루스 베네딕트의 유명한 <국화와 칼>조차 일본 패전 훨씬 전부터 준비한 전후 일본점령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작성된 도구였음을 깨번 매코맥 교수는 <종속국가 일본>에서 지적했다. 강상중 도쿄대 교수가 <반걸음만 앞서 가라



한승동의 동서횡단

>에서 지적한 바로 그 ‘구조적 폭력’, 재일동포와 한민족 전체를 항상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대한 폭력도 거기서 비롯됐다. “한일 유착의 구조와 그것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그림자, 그것이 구조적 폭력의 정체임을 알았다.”

미국의 철저한 보호 아래 정치적 수사 이상의 어떠한 단절과 반성도 없이 히로히토를 계승한 아키히토 ‘천황’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비록 이 땅이 그 히로히토와 대본영이 키워놓은 세력과 그 후예들이 히로히토에 맞서 싸운 세력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다시 주류로 등장하는 파란을 겪은 땅일지라도, 그가 이대로 발을 들여놓긴 아마 어려울 것이다. 천황제를 살려둔 미국과 그 덕에 기사화생한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은 천황제를 매개로 운명공동체가 돼 있다. 이른바 한-미-일 공조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아시아를 철저히 깔보고 그들을 배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온 미-일동맹에, 그들에 의해 국토와 민족이 분단당한 희생 당사자 일부가 걸다리로 붙어 운명공동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격이 아닌가. 박정희 평가도 그 맥락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관련기사

- ‘갑부’ 좇는 중국...박정희에 목매는 한국
- 실패한 ‘자민당 모델’ 뒤따를 텐가
- 경쟁은 ‘생존의 법칙’ 아닌 ‘죽음의 법칙’

기사등록 : 2009-11-06 오후 08:05:34 | 기사수정 : 2009-11-06 오후 08:08:03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